Part 1 CULTURE CODE

1 가면을 쓴 사람들, 가면에 지친 사람들 15

안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증가 | '좋아요'에 지친 사람들 | 페이스북 탈출하기 | 잊힐 권리 vs 기억할 권리 | '밀회 신드롬' | '주폭'이라는 부끄러운 민낯 | 권위와 차별을 위한 가면

2 킨포크 스타일과 잉여들의 전성시대 37

킨포크 스타일과 느리게 사는 사람들 | 수백 년 된 고택에서의 하룻밤 | 제주에서 한 달 살기 | 멀리 더 멀리, 명절에 떠나는 사람들 | 멍 때리기 대회 | 쓸데없음의 쓸 데 있음 | 슈퍼마리오에 목숨 건 어른들

3 이촌향도? 이젠 이도향촌! 51

서울을 떠나는 사람들 | 전세난민 도미노 | 집, 팔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은 없다 | 왜 그들은 제주로 갈까 | 시골에 가는 3040 | 귀농·귀촌에 부는 두 가지 바람 | 한국인의 92퍼센트가 도시에 산다

4 예쁘게, 더 예쁘게 68

단언컨대 한국 여자가 제일 예쁘다 | SNS가 성형수술을 부추긴다? | 세계에서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| 서울 20대 여성 5명 중 1명은 저체중 | 셀카 열풍, 스마트폰을 바꾸다 | 셀카봉에 숨은 트렌드 코드

5 **코딩 열풍과 공부에 대한 이중적 태도** 82
코딩 배우는 초딩 | 기업이 이끄는 코딩 열풍 | 독서, 스펙이 되다 | 입시 대리모와 공부 알약 | 대한항공 국제선엔 왜 아동 인솔 서비스가 있을까 | 줄어드는 대학 진학률과 사교육 | 진짜 공부가 필요하다

6 **불안, 일상이 되다** 98
묻지 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 | 땅 밑엔 싱크홀, 땅 위엔 강력 범죄 | 5초마다 찍히는 CCTV 천국 | 가족관계증명서, 이젠 아무나 못 본다 | 당신의 섹스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다면? | '글루텐 프리' 마케팅 | 미세먼지의 공포

7 **열심히 달렸지만 우린 행복해지지 않았다** 113
한국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| OECD 최고의 자살률 | 혼자만의 감옥, 우울증에 갇히다 | 없는 사람 걸어갈 때 있는 사람 뛰어갔다 | 떨어지는 민생지수, 나빠지는 서민 경제 |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들 | 당장 쓸 돈도 없다 | 개천에선 용이 나지 않는 시대 | 직장인의 행복을 말하다

Part 2 **LIFE STYLE**

8 **빵로드와 커피홀릭** 139
빵로드에 나선 그녀들 | 동네 빵집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 | 서울발 단팥빵 전쟁 | 밥보다 커피 | 왜 그녀들은 투명한 보틀에 열광하는가 | 마이 보틀에 담긴 욕망

9 **사랑도 과외받는 시대, 달라진 연애관과 가족관** 155
신자유주의 시대의 연애 | 가난하면 연애도 하지 마? | TV와 인터넷으로 연애를 배우다 | 연상연하 커플 증가세 | 요즘 착한 며느리가 예전 나쁜 며느리만 못하다? | 당당한 처가살이 | TV는 가족을 싣고 | '프렌디'와 육아 휴직 | 굿바이 명절

Part 3 BUSINESS & CONSUMPTION

16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, 시간을 팝니다 255

시간을 파는 카페 | 영화관에 빼앗긴 10분 | 가장 적게 자고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| 저녁이 없는 삶 | 야식, 허한 마음을 채우다 | 늘어나는 심야식당, 우리의 밤은 여전히 밝다

17 사라진 5만 원권과 줄어드는 신용카드 266

그 많던 5만 원권은 다 어디 갔을까 |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? |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| 삼성, 현대차, SK… 기부금은 성적순 | 줄어드는 법인세, 늘어나는 소득세 | 천 원짜리 생수도 카드로 긁는다 | 젊은이들이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이유 | 40대의 꿈은 '인생 역전' | 자영업의 위기는 계속된다 |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질까

18 연결된다, 고로 존재한다 290

'와이파이'는 우리의 기본 욕구 | 스마트냐 워치냐, 뜨거운 손목 전쟁 | 디자인계 거물들이 애플로 간 까닭 | 일상에 파고든 사물인터넷 | 좀비 피시보다 더 무서운 '좀비 냉장고' | 지갑도 카드도 필요 없다, 웨어러블 뱅킹

19 소비의 진화, 쇼루밍과 프리미엄 인플레이션 304

쇼루밍족이 유통을 바꾼다 | 오프라인 매장은 변신 중 | 소비 채널의 변화, 직구족과 온라인의 성장 | 한국인도 '애정'하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 | 프리미엄 선호와 프리미엄 인플레이션 | 내복을 벗고 히트텍을 입다

20 욕망의 삼총사 자동차, 담배, 술 318

자동차 2000만 대 시대 | 크고 하얀 독일 차의 약진 | 디젤차 전성시대 |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| 누가 한국 남자를 담배에 중독시켰을까 | 2015년 치열한 맥주 전쟁

21 FAKE, 짝퉁의 유혹은 끝나지 않는다 337

가방에서 자동차 부품까지 '짝퉁 천국' | 루이비통 뜨고 프라다 지고… 위조산업의 트렌드 | 해외 직구와 짝퉁의 상관관계 | 탐스슈즈 짝퉁을 신는 사람들 | 무서운 짝퉁, 샤오미와 화웨이

22 셜록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다 349

한국판 셜록 홈즈 탄생할까 | 원격 진료와 의료 민영화, 이미 시작되었다 | 문화가 있는 수요일 | 일상의 불편을 해소해 드립니다 |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의 기회 | 설렁탕에 소면이 들어간 까닭은

참고자료 362